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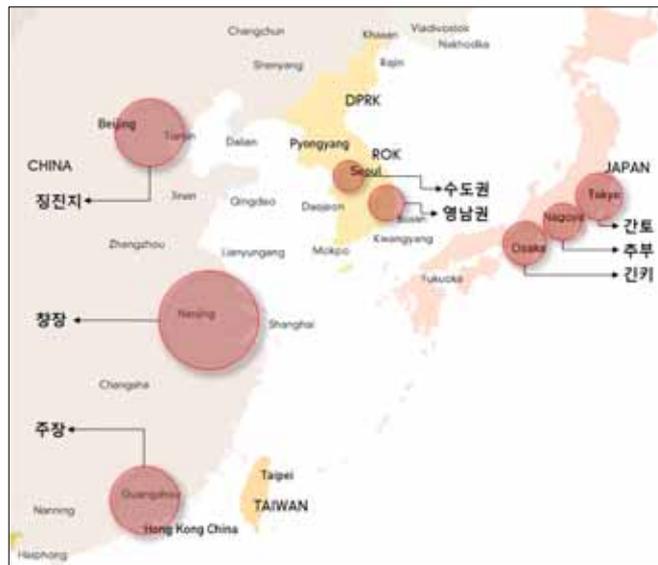
동북아 경제지형의 변화와 거대경제지역의 발전 전망

- 동북아의 경제지형은 거대 경제집적지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이들 거대지역의 경쟁과 협력 양상에 따라 장래 개별 지역의 명암이 엇갈릴 것임
 - 2020년에는 중국의 창장지역이 1強을, 간토지역과 주장(홍콩 포함)지역이 2中, 나머지 지역이 5弱을 형성하는 구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경제지형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동북아 내 제조업의 이동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관
 - 중국 거대지역의 약진은 제조업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본 거대지역은 이미 제조업의 상대적 축소를 경험하고 있고 한국의 수도권이나 영남권도 제조업 기지로서의 위상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거대경제지역 간 상호작용에서 중국의 창장지역과 징진지지역이 가장 많은 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취약한 구조임
 - 수도권은 동북아 타 거대지역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취약
- 한국의 과제는 우리 내부의 혁신역량 제고와 동북아 및 세계 거대지역과의 교류와 중개기능을 확대하는 것임
 - 광역권이나 초광역벨트 구상도 세계적인 거대지역화의 추세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

1. 동북아 경제지형의 현재와 미래

- 동북아의 경제지형은 거대 경제집적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들 거대지역 (mega-regions)의 향후 진화방향에 따라 동북아의 경쟁과 협력구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
 - 8대 거대지역은 중국의 주장(珠江)삼각주, 창장(長江)삼각주, 징진지(京津冀), 일본의 간토(關東)권, 긴키(近畿)권, 추부(中部)권, 그리고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임¹⁾

[그림 1] 동북아 8대 거대지역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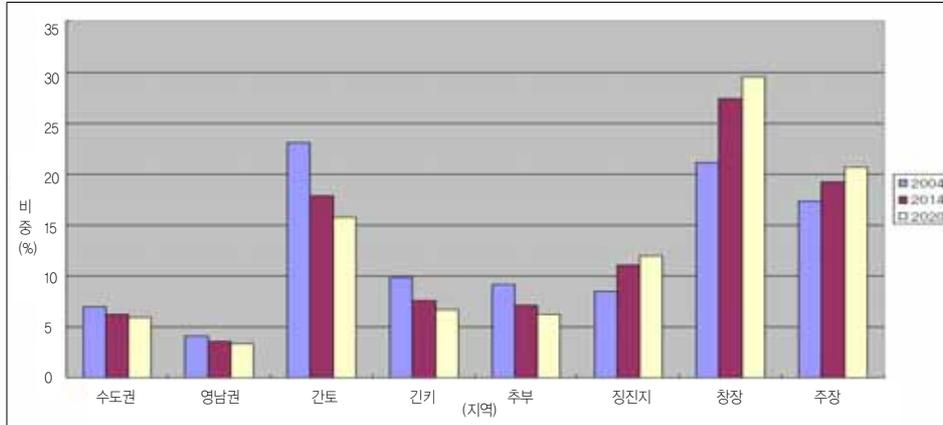


- 구매력지수로 계산한 지역총생산의 규모에서 중국의 창장지역과 주장지역은 일본의 간토지역을 2007년에 추월한 것으로 추정
 - 거대지역별 경제성장의 추정 결과, 현재의 2강(간토와 창장), 1중(주장), 5약의 구도와는 상이하게 2020년의 동북아의 경제지리 구도는 중국의 창장지역이 1강(強)을, 일본의 간토지역과 중국의 주장(홍콩포함)지역이 2중(中)을, 징진지지역이 약간 앞서나 나머지 지역을 포함하여 5약(弱)을 형성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 총생산 추정치에서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해도 2004년 기준 일본의 간토, 중국의 창장 및 주장지역의 경제규모에 미달하며, 이러한 격차는 2020년에는 더 벌어져 중국의 징진지지역보다 규모면에서 뒤처지게 될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이나 일본의 거대지역 규모로 보면, 한국은 하나의 거대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제비교의 편의상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경제규모와 인구는 <표> 참조.

- 한국의 양대 거대지역은 중국이나 일본 거대지역과의 보완적 연계관계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2] 8대 거대지역의 GRDP 비중



[표] 동북아 거대경제지역의 기본 지표

구분	구매력지수 GDP 2005 (10억 국제달러)	국제환율 변환 GDP 2005 (10억 미국 달러)	인구 2005 (천 명)
중국	8,573	2,229	1,304,500
창장	1,338	348	82,280
징진지	438	114	34,700
주장	623	162	40,780
주장+홍콩	801	340	47,724
일본	3,944	4,506	127,956
간토	1,444	1,650	42,370
긴키	596	681	20,890
추부	574	656	17,220
한국	1,056	794	48,294
수도권	479	360	23,050
영남권	282	212	12,985

주: 중국의 3대 지역은 중국 내 문헌에서 주장하는 권역을 수용, 따라서 일본이나 한국의 권역보다 과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의 3대 지역 기반시설 투자추세를 감안하면, 장래 경제 권역으로서 작동 가능한 범위로 수용할 수 있음. 한국은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자료: 중국 지역별 인구 및 GDP자료는 2004년도, 牛風瑞 盛廣耀 2006

일본 지역별 인구자료는 2005년, GDP자료는 2003 회계연도, 일본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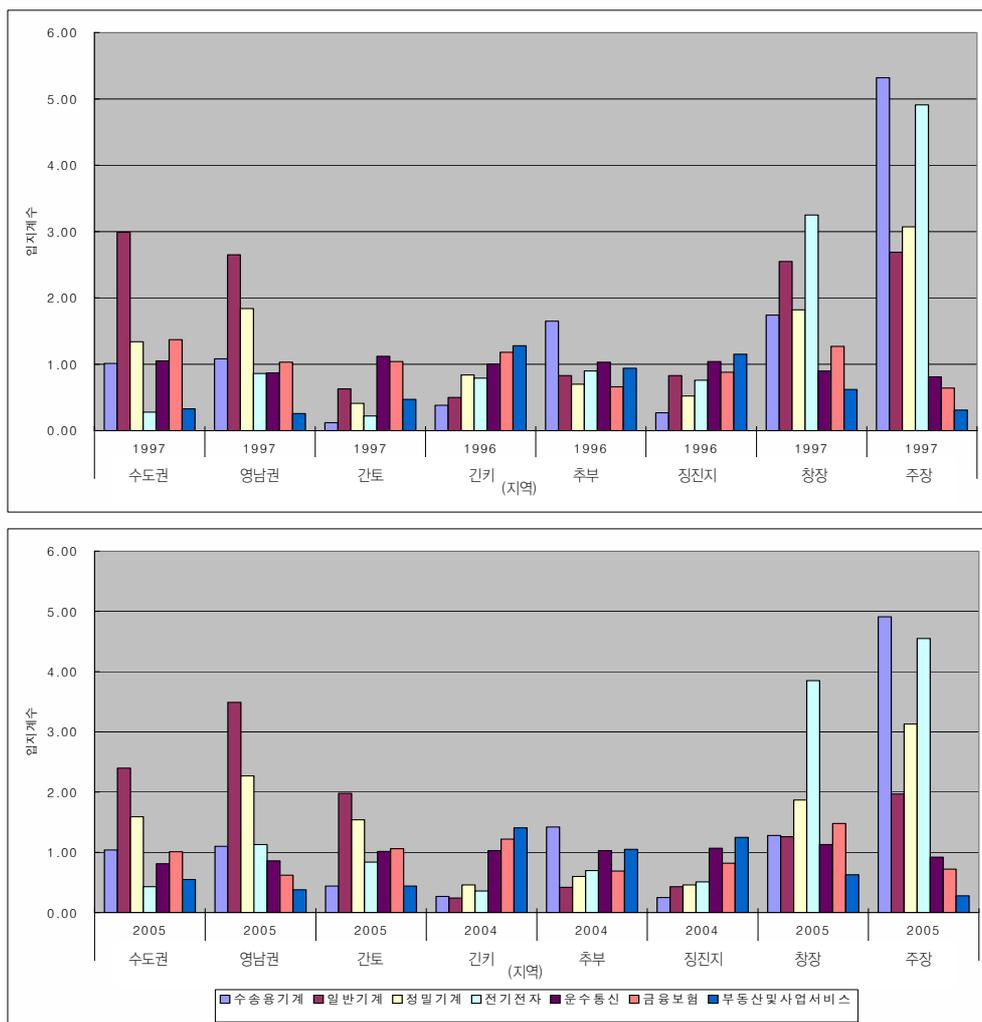
한국 지역별 인구 및 GDP자료는 2004년도 자료, 통계청 지역총생산.

국가별 PPP GDP 및 GDP 2005 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 July 2006.

2. 동북아 경제지형 변화의 동인

-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동북아 내 제조업의 이동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1997년 및 2005년 사이 산업활동의 입지계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중국 거대 지역의 약진은 일본 거대지역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향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축소를 예견할 수 있음
- 서비스업에서 중국 3대 거대지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아직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간토지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요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인 특화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

[그림 3] 동북아 거대지역의 산업특화



- 중국의 3대 거대지역(홍콩 불포함)을 제외한 일본과 한국의 거대지역 모두 운수통신업에서 약한 수준의 특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간토권과 한국의 수도권만 금융보험업에서 상당한 집적을 시현
- 중국의 거대지역은 서비스업 경제로의 구조전환 중이나, 제조업의 상대적 고속 성장으로 국제비교에서는 서비스업의 열세를 노정
- 향후 서비스업에서의 지역 간 경쟁은 일본의 간토지역, 한국의 수도권,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주장지역이라는 3대 지역 간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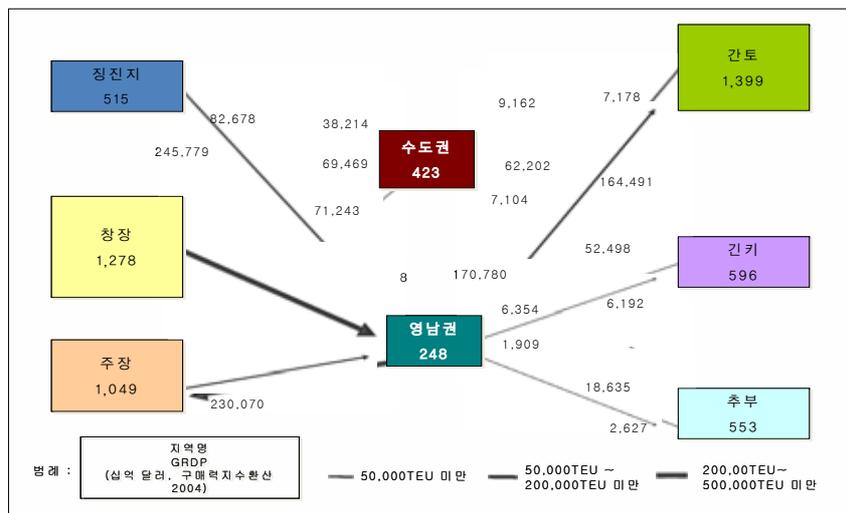
3. 거대경제지역 간 연계

- 중국 3대 거대지역은 중국 전체 수출입이나 투자유치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중국의 3대 거대지역은 대한국 수출의 54.0%와 수입의 80.1%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창장지역이 한국과 가장 긴밀한 교역관계를 보유
 - 한·중 교역의 경우 2006년 수도권이 약 45%, 영남권이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발생
 -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중투자 역시 주 대상지역은 창장과 징진지지역임
- 한·중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은 전자·통신 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수도권에서 중국 창장지역과 징진지지역으로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 다음으로 중요한 대중국 투자분야인 수송기계업종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각각 중국 징진지와 창장지역으로의 투자가 중요한 흐름을 구성
- 한·일 간 교역에서 보면 수도권이 전체 교역의 38%, 영남권이 2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도 상당량의 대한 교역이 일본의 3대 거대지역에서 발생
- 중·일 간 교역도 거대지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 3대 거대지역은 대일본 교역 총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한·중, 한·일 거대지역 간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전기·전자 관련 제품이며, 이 업종에서 거대지역 간 소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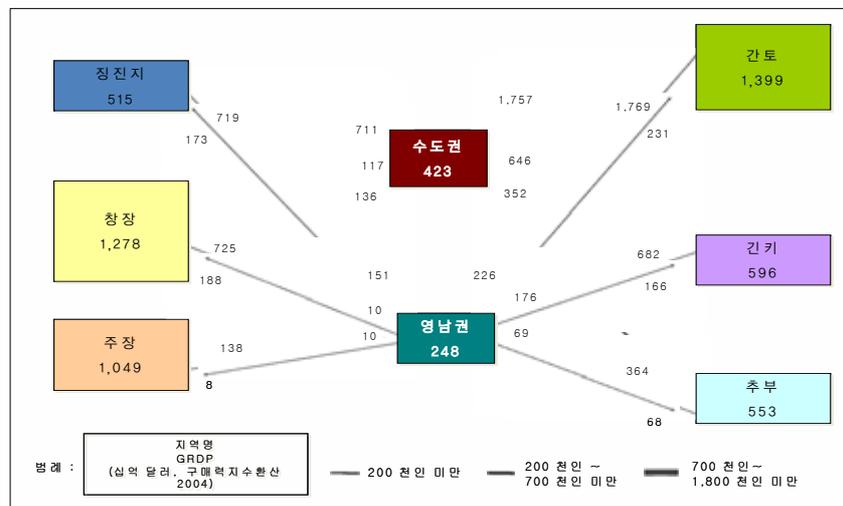
○ 거대지역 간 물류는 대체적으로 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 해상화물 흐름에서는 한국의 영남권 및 수도권이 중국의 창장지역 및 징진지지역, 일본의 거대지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나, 부산항의 존재로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중요한 역할 수행
- 항공화물이나 여객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과 일본 간토권 간의 연계가 가장 밀접하며, 다음으로 수도권과 일본 긴키권 또는 중국 징진지지역이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창장지역은 한국 양대 권역과 가장 큰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항공 물류나 여객 흐름에서는 하위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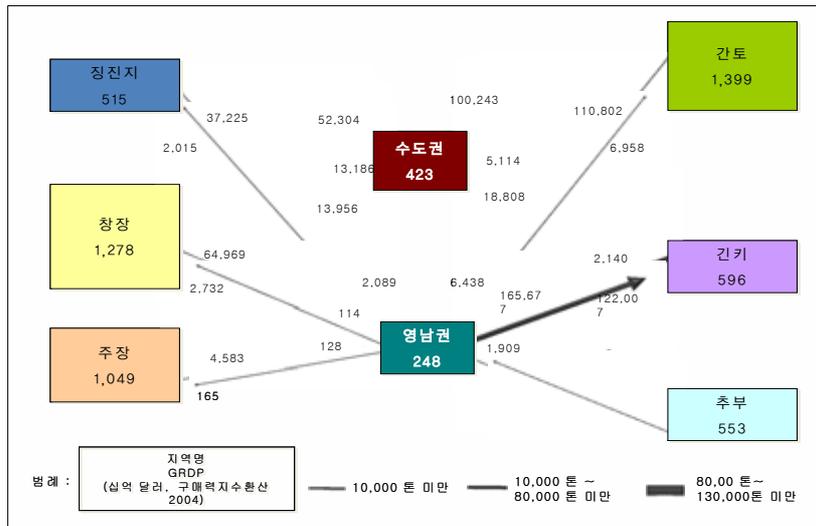
[그림 4] 한·중, 한·일 거대지역 간 해상물동량 (2005년 기준)



[그림 5] 한·중, 한·일 거대지역 간 여객수송량 (2005년 기준)



[그림 6] 한·중, 한·일 거대지역 간 항공화물 물동량(2005년 기준)



4. 거대경제지역 간 상호 작용

- 지역 간 상호 작용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중국의 징진지지역이 여타 동북아 거대경제 지역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징진지 지역이 최다수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역내 중심성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해석 가능
- 통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수도권의 경제 성장은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한국의 영남권, 중국의 주장, 창장, 징진지, 홍콩 등의 지역 경제성장이 수도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도권과 영남권 간의 경제적 상호 작용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 경제는 국내나 동북아 지역에서 고립을 시사하고 있음
 - 영남권의 경우 중국의 창장지역과는 상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징진지지역과 일본 간토지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위와 같은 상호 작용 분석결과가 지역 간 보완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한다면, 한국의 영남권 및 특히 수도권은 동북아 거대지역과의 연계관계를 다변화시키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

5. 국토정책 시사점

- 거대지역의 형성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거대지역 몸집 불리기 전략으로 가시화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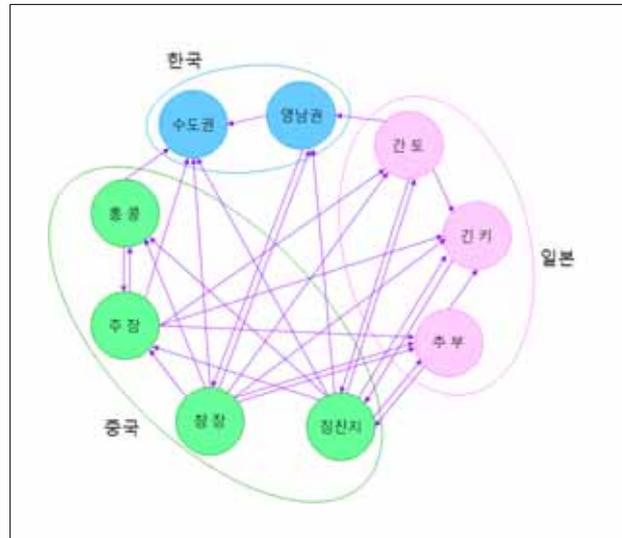
- 우리 국토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담아내는 데 아직도 미흡하며 여전히 국내적 시각에 치중되어 있음
- 동북아 타 거대지역과의 상호 작용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비교에서 보면 한국 전체가 일체화된 단일 거대 혁신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토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 현재 논의 중인 광역권이나 초광역벨트 등의 구상을 거대지역화의 추세에 맞추어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창의와 혁신의 발신, 세계 거대지역과 동북아 거대지역 간의 교류와 중개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토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7] 각 지역별 GRDP 기준으로 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



●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031-380-0222, winterpine@krihs.re.kr)

참고문헌

- 김원배. 2007.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Ⅰ) -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 -. 국토연구원.
 Richard Florida, Timothy Gulden, and Charlotta Mellander. 2007. "The Rise of Mega-region". The Martin Prosperity Institute, University of Toronto. www.rotman.utoronto.ca/userfiles/prosperity/File/Rise.of.%20the.Mega-Regions.w.cover.pdf

2)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40개의 거대지역이 존재하며, 동북아에서는 도쿄지역, 오사카-나고야, 서울-부산, 후쿠오카-키타큐슈, 홍콩-선전, 상하이, 타이페이, 베이징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음(Florida et. al. 2007). 중국의 창장지역은 초기 상하이-난징-항저우 삼각을 중심으로 16개 시를 포함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하이와 장수, 저장성 전체를 포함시키는 초거대 지역을 정책적으로 설정한 바 있음.